



성도GL/성도솔루윈,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제11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개최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6월 2일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위치한 미술관 공간퍼플에서 제11회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리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번 연주회는 탁월한 해설·연출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의주 씨가 진행을 맡아 ‘해설이 있는 오페라 콘서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작곡가의 심오한 음악세계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특출함을 지닌 지휘자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서현석 교수의 지휘가 빛을 발했다.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교수이자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콩쿠르 1위에 빛나는 소프라노 신지화, 이탈리아 만토바 국제콩쿠르 1위 수상의 소프라노 김상은, 프랑스 마르맹드 국제콩쿠르 입상자이자 현 서울시립대와 가톨릭대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이승묵, 이탈리아 제노바 국제콩쿠르 입상자이자 현 국민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김진추 등이 봄날 밤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목소리로 음악의 감동을 선사해 관객들의 큰 갈채를 받았다. 특히 베르디의 오페라 춘희를 대표하는 ‘축배의 노래’는 앙코르를 이끌어낼 만큼 관객의 호응이 뜨거웠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메세나협회의회에서 운영하는 기업 예술지원 프로그램인 매칭펀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다.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주)성도GL/(주)성도솔

루윈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인 공간 퍼플의 야외 공연장에서 매년 정기연주회 형식으로 열린다.

공간퍼플, 9월말까지 단색조의 회화II 전시

미술관 공간퍼플은 국내외 정상급의 아티스트 작품들을 통해 참신하면서도 격조 있는 전시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예술의 감성이 살아 있는 공간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단색조의 회화II’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단색조 회화는 일체의 형상과 이미지를 화면에서 제거하고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함으로써 평면이라는 구조적 형식과 동양적 정신성이라는 문제를 반복된 행위를 통해 나타낸 장르다.

공간퍼플은 1970년대 이후 특정 양식으로 한국현대미술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은 단색조 회화를 1부·정창섭, 박서보, 정상화, 이승조, 서승원, 김태호-에 이어 또 다른 6명의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단색조 회화만의 독자적인 감성 및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단색조의 회화II-김기린, 김형대, 윤명로, 최병소, 오수환, 이동엽’를 준비했다. 공간퍼플은 상기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단색조 회화만의 독특한 조형세계와 이를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전달한다. ↻